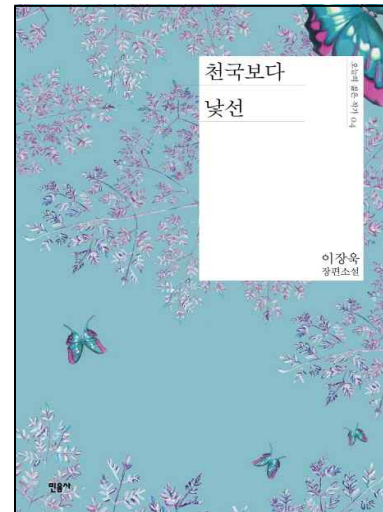


2월의 읽을 만한 책

분야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발행일	추천자
문학 예술	천국보다 낯선	이장욱	민음사	2013.12.13	정이현
	북경 예술 건축론	김도연	생각을담는집	2014.01.10	이현우
인문학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주경철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11.15	김문식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로랑 베그/ 이세진	부키	2013.12.20	이진남
사회 과학	미래를 여는 18가지 대안적 실험	장병윤	엘로스톤	2013.09.10	왕상한
	경제학, 인문의 경계를 넘나들다	오형규	한국문학사	2013.12.30	전형구
자연 과학	자연에는 이야기가 있다	조홍섭	김영사	2013.12.13	이한음
실용 일반	아빠의 수학여행	김민형/ 황근하	은행나무	2014.01.02	이하경
유아 아동	아빠 딸은 어려워	신여량 글, 오승민 그림	한겨레출판 (한겨레아이들)	2013.12.13	김대경
	고요한 나라를 찾아서	문지나 글, 그림	북극곰	2013.12.01	이상희



천국보다 낯선
이장욱/민음사
2013.12.13 발행/276쪽/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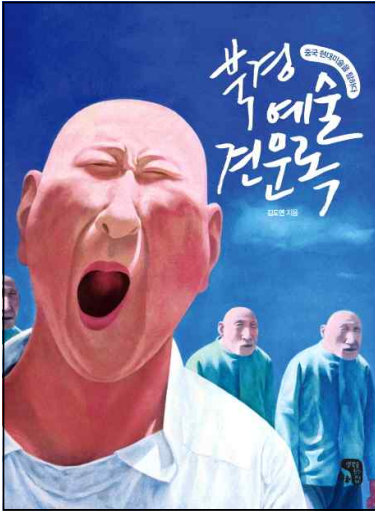
이 책은 시인이자 소설가인 이장욱의 새 장편이다. 소설은 일종의 로드 무비 형식을 띠고 있다. 정, 김, 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세 명의 친구들이 한밤의 고속도로에 있다. 대학시절부터 공통으로 알고 있는 A가 갑작스럽게 죽었고 그들은 한 차를 타고 문상을 가는 것이다. 소설 전체는 총 열 두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지막 장을 제외한) 각장에서 등장인물 세 명이 번갈아 일인칭 시점으로 진술한다.

그들의 진술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밤, 며칠 전 A가 만든 영화의 작은 시사회, 먼 대학 시절 등을 넘나든다. 그러나 함께 겪은 사건들에 대한 기억은 서로 어긋나고, 그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기억을 발화한다. A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들 각각에게 그녀는 '해독불가능한 문자'였고 '여름의 팽창하는 대기'였고 '비어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다. 모두가 그녀를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했지만 그녀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고, 그것은 그들 각자가 자신의 생을 대하는 태도와도 닮아 있다.

이 책을 읽는 것은 독자에게 특별한 독서 경험을 준다. 미묘하게 서걱거리며 진행되는 서사를 따라 가다 보면 돌연 이상한 느낌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이다. 인물들을 태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은 어느 순간부터 신호를 잡아내지 못하고 이미 라디오에서 방송된 교통사고가 뒤늦게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독자는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을 믿어야 할지 급격히 혼란스러워 진다. 그 혼란스러움은 독자로 하여금, 역시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설 내부의 '어떤 것'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 3인칭으로 서술되는 마지막 장을 덮고 나면 한동안 멍한 충격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책을 읽는 것은 현재 한국문학의 낯선 최전방을, 그리고 미래를 탐험하는 일이다.

- 추천자 : 정이현(소설가)

문학예술 분야



북경 예술 전문록
김도연/생각을담는집
2014.01.10 발행/398쪽/20,000원

미·중시대로 접어들면서 중국 관련서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알려주는 책들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중국의 모습도 많다.

가령 중국 현대미술은 어떤가. 중국 현대미술의 기점을 1979년으로 잡는다고 하니 우리에게 생소한 건 당연한지도 모른다. 일본이나 한국보다도 반세기 이상 늦게 서양의 현대미술을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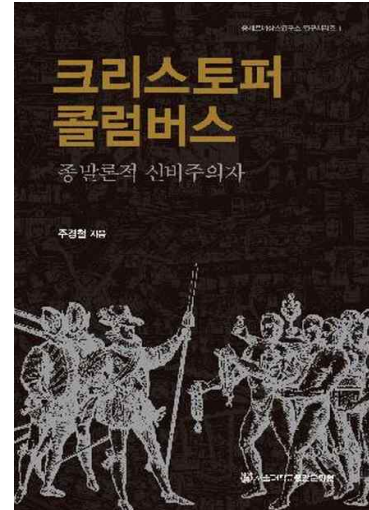
아들인 것이므로 그 수준 역시 아직은 부족하지 않을까 예단한다면 오산이다. 중국 경제의 급부상과 함께 중국의 미술시장 역시 유례없이 성장했고, 작가들 또한 세계미술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북경예술전문록』은 바로 이런 관심과 물음에 답하는 책이다. 황막한 공장지대였던 베이징의 798 구역이 어떻게 예술구로 성장하고 자금성이나 만리장성에 버금가는 여행의 메카가 되었는지, 대표 미술관과 화랑은 무엇이고 어떤 전시들을 해오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원링, 팡리퀸, 황루이 등 당대를 대표하는 중국 예술가들이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예술적 비전은 무엇인지 저자는 현장 사진과 인터뷰 등을 통해서 안내한다.

매일 15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다는 798 예술구와 여러 화랑, 작가들의 작업실 모습은 오늘의 중국을 또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든다. 바로 살아있는 중국의 모습이다.

- 추천자 : 이현우(인터넷 서평꾼)

인문학 분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주경철/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11.15 발행/336쪽/20,000원

콜럼버스는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를 찾아간 최초의 유럽인으로 근대사의 형성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그러나 콜럼버스의 행적에 대한 평가는 시기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다. 19세기에 그는 과거의 전통과 억압적 권위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 영웅이자 진보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20세기에 그는 노예제를 시작하고 천연두를 들여왔으며 대규모 학살을 저지른 인물로서 서구 제국주의의 원조로 평가받았다. 이

책은 새로 발견된 자료들을 활용하면서 위험한 항해에 나섰던 콜럼버스의 심성세계를 추적한다.

콜럼버스는 당시 스페인에서 유행하던 중세적 종말론에 깊이 경도되어, 세상의 종말까지 150년의 시간이 남았고 조만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콜럼버스는 자신의 항해를 지원한 스페인의 국왕 페르난도를 새로운 다윗으로, 자신은 그 수하로서 다윗이 활동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인물로 상정했다. 콜럼버스는 자신이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그곳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은 신에 의해 예정된 운명이라 믿었으며, 스페인 국왕은 콜럼버스가 획득한 금을 재원으로 십자군을 조직하여 이슬람 세력에 점령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시온 산에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콜럼버스는 귀족의 작위를 받고 막대한 부를 얻겠다는 세속적 욕망과 전 세계에 기독교를 전파하겠다는 신성한 사명감을 가지고 네 차례의 항해에 나섰으며, 인류가 첫 출발지였던 에덴동산으로 복귀하면서 역사가 마감된다는 종말론적 신비주의자로서의 특성을 가졌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다.

- 추천자 : 김문식(단국대 사학과 교수)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로랑 베그/이세진/부키
2013.12.20 발행/368쪽/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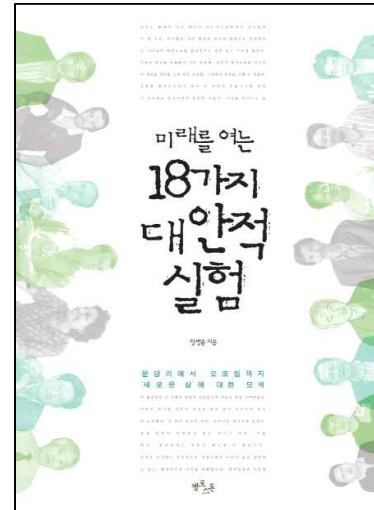
성장의 미신을 강요하던 경제학이 철석같이 믿어왔던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동물’이라는 가정은 이미 폐기된 지 오래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기적 개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이 시장과 사회를 이상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 책은 인간에게 도덕적 열망이 있다는 점을 긍정한다. 그러나 칸트와 같이 도덕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는 않

는다. 그렇다고 공리주의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도덕적인 것이 옳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대신 인간의 도덕적 심성을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가 속한 집단과 사회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는 본능적 노력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행위의 동기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이기적이지도 이타적이지도 않은 중성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각종 실험을 통해 입증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인간의 사회적 본능이 어떻게 도덕적 행동을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준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이 개인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고, 자신에게만 관대한 성향이 위선과 독선을 만들어내며, 권위에 대한 복종이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끔찍한 범죄를 태연하게 저지르도록 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결국 선과 악을 구분하여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적 ‘본성’의 정체는 타인과 사회라는 것이다. 소속되고 싶고 소외되지 않으려는 욕구, 모방과 학습을 통해 무리 안에 안정된 위치를 차지하려는 본능, 그리고 사회적 본능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적 삶을 이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도덕은 그리 거창한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닌 사회적 본능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 추천자 : 이진남(숙명여대 교양교육원 교수)



미래를 여는 18가지 대안적 실험
장병윤/엘로스톤
2013.09.10 발행/216쪽/13,000원

인류의 2대 위기로 거론되는 에너지와 식량. 인류는 이 외에도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 앞에 직면해 있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을 하는 것은 쉽지만 그 대안을 제시하는 건 쉽지 않다.

이 책은 이론서가 아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 대안적 삶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을 담았다. 오랫동안 생태와 대안적 삶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귀농의 꿈을 간직하고 있는 저자의 시각과

탐색 결과가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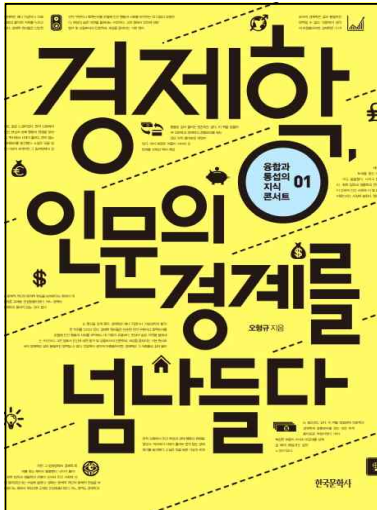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 위기들을 자본, 기술혁신, 생산성 제고 등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승자가 독식하는 약육강식의 경쟁사회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필연적으로 자연을 약탈할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과 이윤창출이라는 시장경제 원리는 우리 삶의 질과 행복을 담보하지 못한다.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 체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없는 무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진실은 조금씩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무한한 성장은 없다. 성장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석유가 고갈되면 인류도 종말을 고하게 될까. 성장시대의 종언을 인류사회가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계기로 반전시킬 수는 없을까.

농업과 주택 등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 교육, 의료, 대안경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실험을 포함하고 있다. 정해진 규칙처럼 따라야 하는 성장과 경쟁 게임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희망이랄까 지침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추천자 : 왕상한(서강대 법학부 교수)

사회과학 분야



경제학, 인문의 경계를 넘나들다
오영규/한국문학사
2013.12.30 발행/360쪽/13,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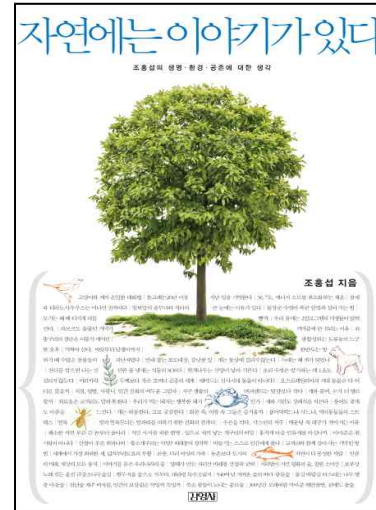
이 책은 비전공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역사, 문화와의 접목을 통해 정리한 경제학 입문서 내지는 안내서이다. 또한 유연한 사고의 확장을 위해 학문 간의 융합과 통섭의 지식을 다루고 있는 책이기도 하다. 사회 전반적으로 융합과 통섭을 강조하고, 대학에서도 문·이과 교차를 확대하거나 구분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로 및 학과 선택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이나 학문적 교양을 추구하는 성인들에게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문학이 지금보다 호황인 적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문학자들은 여전히 '인문학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교양과목의 축소, 인문대 신입생의 감소, 졸업생들의 취업난 등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인문학이 과연 무엇인가에 한쪽에서는 인문학을 열광하고, 다른 쪽에서는 위기라고 걱정할까? 인문학(人文學)이란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 영역이다. 이에 따라 문학·역사·철학 외에 경제학뿐 아니라 건축학이나 수학 등 이른바 이공계 학문도 그 근원에는 인문학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을 위한 모든 학문에는 인문학적 바탕이 깔려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인문학이 존재하고 있다.

경제학은 예나 지금이나 '사회과학의 꽃'이란 지위를 누리고 있다. 경제학 원리는 인간의 행동과 사회를 파악하는 데 더없이 유용하며, 현상의 숨은 이면을 들춰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에 대한 탐구나 성찰로서의 인문학과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 원리로서의 경제학은 결코 동떨어진 영역일 수 없다. 인문학이 생각의 마중물이라면 경제학은 그 마중물로 걸어 올리는 펌프와도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학의 원리를 쉽게 풀어쓴 이 책은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보물 같은 한 권의 책이 될 것이다.

- 추천자 : 전형구(독서 경영 칼럼니스트)

자연과학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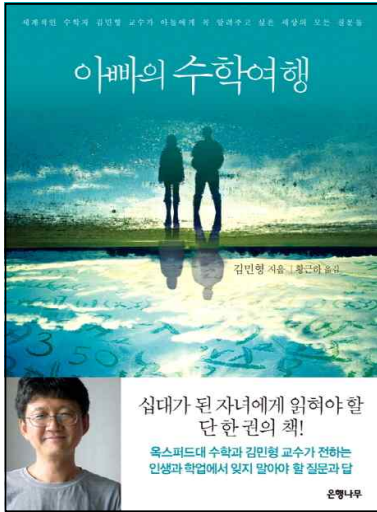
자연에는 이야기가 있다
조홍섭/김영사
2013.12.13 발행/344쪽/14,000원

좋은 말도 많이 들으면 식상해지기 마련이며, 심하면 오히려 외면하는 현상도 벌어진다. 서두도 채 꺼내기 전에, “아, 알아요. 자연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좋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다. 한쪽에서는 생물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절실하게 말하려 하지만, 듣는 쪽은 다 아니까 그만 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으며, 그들은 지금도 새로운 소식을 들려주고 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내용이 있다고, 감동과 감탄을 자아내는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알려준다. 다 안다고 손사래를 칠 때, 우리는 최신 과학이 밝혀내는 새로운 사실과 깨달음을 통해 얻는 즐거움을 놓치게 된다. 자연이 들려주는 새롭고도 색다른 이야기를 못 듣게 된다.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다. 이 책에는 최근에 연구자들이 밝혀낸 자연의 새로운 모습들이 소개되어 있다. 사막의 쇠뿔구리에게는 굴리는 똥 경단이 더위를 쫓는 에어컨 역할도 한다는 이야기나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라는 말이 과대광고라는 이야기처럼, 흥미진진하면서 깨달음을 안겨주는 알찬 내용이 가득하다. 더욱이 읽다 보면 자연과 환경을 오래 살펴본 저자의 깊은 통찰과 따뜻한 시선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무지하면서도 자연을 다 안다고 아집을 부리고 있음을 저절로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

- 추천자 : 이한음(과학 전문 저술 및 번역가)



아빠의 수학여행
김민형/왕근하/은행나무
2014.01.02 발행/288쪽/14,000원

성장기의 자식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한국의 부모에게 자식은 맹목적 헌신의 대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기식대로 일방적인 사랑을 주려다 상처받는 일이 흔히 벌어진다. 행복한 인간이 되기보다는 성공한 인간이 되기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역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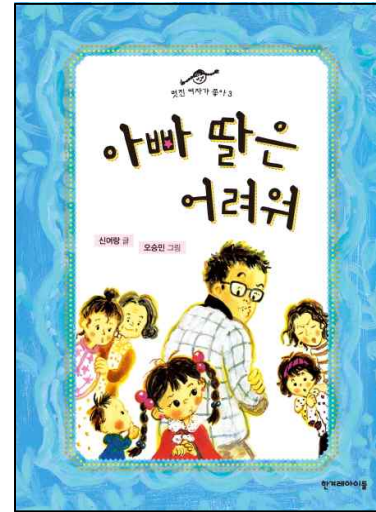
이 책은 사랑을 주고받는 방법을 몰라 힘들어하는 부모와 자식에게 좋은 참고서가 될 만하다.

저자는 가족과 떨어져 영국과 독일에 머무는 동안 '여행지에서 편지'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감정을 충실하게 전달해 완벽한 관계 맺기에 도전했다. 성장기의 두 아들을 향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특별한 서사시를 발신했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서울대 개교 이후 최초로 조기졸업이며 옥스퍼드대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정교수가 된 김민형 교수다. 대중과 소통하는 수학의 실현을 위해서 수학재단 설립을 꿈꾸며 수학콘서트의 메인마스터로도 활동하는 특별한 수학자이기도 하다.

독자들은 흥미로운 수학 이야기와 함께 철학 음악 미술 문학에 대한 다양한 단상을 읽고, 따뜻한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이상주의자였던 아들의 증조작은 할아버지가 북을 선택했지만 희생당했던 이야기를 그가 남겼던 시와 함께 소개함으로써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설명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자식을 향해 소통하려는 독자의 노력과 비교하면서 이 책을 읽어간다면 특별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저자가 이 한권의 책을 통해 이루고 싶어 한 것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숙명적 관계의 상투성을 벗어난 진정한 행복나누기가 아니었나 싶다. 세계적인 수학자의 아주 특별한 교양서라고 할 수 있다.

- 추천자 : 이하경(중앙일본 논설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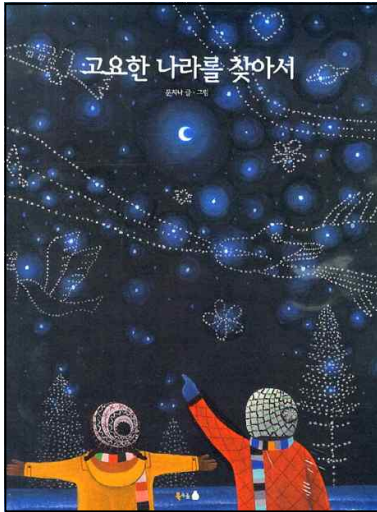
아빠 딸은 어려워
신여랑 글, 오승민 그림/한겨레아이들
2013.12.13 발행/104쪽/9,000원

아빠의 부재를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가족의 모습,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가 않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아빠는 어느새 가족들에게 존재감을 상실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자녀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건 중 하나로 '아빠의 무관심'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등장하였겠는가?

그런데 오랜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빠가 그동안의 부재를 메우기 위해 가장 노릇, 아빠 노릇을 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서면서 가족 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다. 아빠에게는 딸의 마음이 '욕심'으로, 딸에게는 아빠의 마음이 '강요'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빠가 즐겨 입는 생활 한복이 딸의 눈에는 영 마뜩잖아 보인다고 하면, 요일반지를 얻기 위해 피아노 대회 준비를 하는 딸의 모습이 아빠에게는 영 못마땅할 뿐이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가치관을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작가는 재기발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왜 모두들 내 진심을 몰라주는 걸까?”라고 중얼거리는 아빠의 대사는 어쩌면 오늘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슴에 품고 있는 대사일지도 모른다. 현대 사회의 가족이 처한 현실과 갈등을 보여주는 이 책을 통해 서로에게 멋진 아빠 딸, 딸 아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한번쯤 고민해 볼 만한 기회를 선사하는 책이다.

- 추천자 : 김대경(서울 성수고 교사)



고요한 나라를 찾아서
문지나 글, 그림/복극곰
2013.12.01 발행/44쪽/15,000원

누가 죽음에 대하여 10분 이상 평화로운 어조로 말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는 담담한 철학을 피력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 계속되면 개인적인 애도에 빠져들어 마음 비틀거리기 십상이다. 그러니 죽음에 대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말하는 방식은 대개 만전 피우기, 또는 빙빙 에둘러 얼버무리기가 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은 어차피 죽음을 이해할 수 없다거나, 그 먼 세계에 대해 벌써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농치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문명 세계에서는 연로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일보다 훨씬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별리가 시시때때 발생하고, 아이들은 괴로움에 빠진 어른들 주위를 맴돌며 끔찍한 분리와 부재의 시간을 막무가내 견디곤 한다.

삶은 죽음에서 시작되니 죽음에 대한 경험 또한 그저 외면하고 뛰어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어른과 아이가 충분하고도 적절한 애도의 시간을 공유하는 가운데 언젠가 죽음 저 너머에 대해 편안히 얘기하고자 할 때, 이에 관한 훌륭한 그림책들이 큰 도움이 된다. 『고요한 나라를 찾아서』는 고전 명작으로 손꼽히는 『오소리 아저씨의 소중한 선물』과 이 그림책을 착실히 따라간 『여우나무』가 포함된 ‘애도’ 그림책 서가에 꽃을 만하다.

젊은 아버지를 잃은 어린 남매가 가족의 추억이 담긴 사물과 존재들을 통해 아버지가 가셨다는 ‘고요한 나라’를 찾아간다. 아버지의 흔적을 찾고 느끼고 숨쉬는 이 상상 여행은 서로를 잘 떠나보내는 배움이 된다. 기교 없이 정직하게 차근차근 화면을 채워나간 그림 장면들이 어린 남매가 펼치는 상상 이야기와 잘 어울린다.

- 추천자 : 이상희(그림책 작가, 시인)